"카타르, 돈으로도 팬은 못 사"

2022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 개막전서 에콰도르에 0-2 패

전반 끝날 무렵부터 관중들 경기장에서 벗어나 '눈총'

'오일머니'를 앞세워 월드컵 개최를 이뤄낸 카타르도, 팬들을 경기장에 머물게 할 순 없었다. 첫 경기 패배에 운 카타르가 관람 문화로도 눈총 받게 됐다.

카타르는 21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0-2로 졌다.

월드컵 92년 역사상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패한 건 카타르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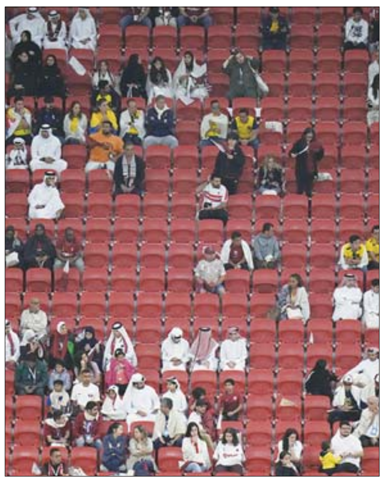
불명예 기록을 쓴 카타르를 더욱 초라하게 한 건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다.

열띤 응원을 보내던 홈팬들은 카타르가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며 끌려가자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후반전이 시작했을 땐 이미 많은 자리가 텅 비어있을 정도였다.

이날 경기장에는 총 6만7372명의 관중이 들었다고 발표됐지만, 경기가 끝날 때쯤엔 절반에 가까운 관중이 이미 경기장을 떠난 후였다.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개막전에서 이처럼 빠르게 경기장을 이탈하는 관중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중 동원 의혹까지 나올 정도다.

ESPN은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 개최를 위해 2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는 이전 8번의 월드컵을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그들은 경기장과 호텔, 새 공항을 지었다"고 소개하며 "그럼에도 이날 밤 카타르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지역에서 부족함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타르는 관중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을 위해 90분 내내 응원을 펼칠 팬을 살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뉴시스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전인 카타르-에콰도르 경기가 열린 알바이트 스타디움. 관중석 빈자리가 눈에 띈다.

SBS, 카타르월드컵 개막전 시청률 1위

A조 1차전서 3.2% 기록… MBC, 3.1% · KBS 2TV는 1.3%

SBS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시청률 경쟁에서 먼저 웃었다.

21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SBS가 전날 오후 11시께부터 중계한 월드컵 개막전 카타르와 에콰도르 조별리그 A조 1차전은 전국 시청률 3.2%를 기록했다. 지상파 3사 중 1위다. MBC는 3.1%로 집계됐고, KBS 2TV는 1.3%에 그쳤다.

축구 영웅 박지성과 캐스터 배성재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SBS 해설위원으로 나섰다. 장지원 해설위원도 함께 했다. 박지성은 호주 축구스타 케이힐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카타르 대표팀은 이동이 많았고, 휴식기간 없이 빡빡하게 일정을 짠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카타르는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고, 에콰도르에 0대2로 패했다. 개최국 최초로 개막전에서 패배한 주인공이 됐다.

MBC는 축구스타 안정환과 김성주·박문성 해설위원을 내세웠다. 안정환은 "월드컵 개막전은 항상 이변이 있다. '개최국이 승리한다'는 법칙을 깨고 에콰도르가 카타르를 잡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다"며 "중동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전반 31분 에콰도르 에네르 발렌시아의 두 번째 골이 터지자 "발렌시아가 개막전 경기를 찢었다"며 "기가 막힌 헤딩골이었다. 집중력 있는 헤딩이다.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KBS는 축구선수 구자철과 캐스터 이광용 2인 체제를 선보였다. 구자철은 2014 브라질·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뛰었으며, 유일한 현역선수 해설위원이다. "내게 선수로 뛴 두 번의 월드컵은 부끄러운 기억"이라며 "세 번째 월드컵은 해설로나마 함께하며 기쁨을 느껴보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대회 주제가 '드리머스'(Dreamers)를 불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H조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 28일 10시 가나, 다음달 3일 자정 포르투갈과 맞붙는다. /뉴시스

배드민턴 프로·아마추어 통합의 장

대학연맹 프로암 대회 성료
전문선수 · 동호인 한 조로
경기 치르는 등 축제의 장으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21일 전라북도체육회에 따르면 2022 한국대학연맹 프로암(Pro-Am)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졌다.

대회에는 한국대학연맹에 소속 된 선수와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한 동호인 등 약 700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기위해 한국대학연맹이 마련했다.

전문 선수와 동호인들이 짝을 이뤄 경기를 치른 이 대회는 참가자들의 순위 경쟁을 벗어나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국대학연맹 이형관 회장은 "국내 첫 프로암 배드민턴 대회를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가 되는 통합을 이뤘다"며 "전국 배드민턴인들이 정읍을 찾아 경기를 비롯해 정읍의 맛과 멋도 즐겼다"고 전했다.

전북배드민턴협회 심용현 회장은 "항상 엘리트 대회, 동호인대회 등 구분 돼 치러졌지만 이번에는 선수와 동호인이 파트너를 이뤄 경기가 진행됐다"며 "이런 대회가 진정한 통합의 의미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뜻깊은 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수와 가족, 임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참가와 관람을 위해 선수단과 관계자 등 전국에서 총 700여 명이 정읍을 방문했다. 이들은 지역 내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김경수기자 · 정읍=김대환기자

2022 한국대학연맹 프로암(Pro-Am)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졌다.

대규모 승마대회 익산에서 개최

익산승마협회장배 전국대회… 마필 200여두 · 선수 등 800여명 참가

익산시가 공공승마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말산업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제1회 익산시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가 익산시공공승마장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전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승마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돼 익산시승마협회가 주관·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익산시가 후원하는 대회다.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은 초·중학생 대상 전국유소년승마대회가 18일부터 20일 3일간은 전국승마대회가 연이어 열리며 장애물경기, 웨스턴스피드경기, 권승경기, KHIS-7(한국마사회 기승능력인증제)등급 경기, 릴레이경기 등 다채로운 종목을 선보였다.

첫 전국 대회에 마필 200여 두와 선수 및 관계자 800여 명이 참가해 전국 승마대회 결전지로 급부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명실상부한 승마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익산시 민간승마장 유소년승마단 소속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국유소년승마 대회 KHIS-7 경기에서 익산시 호남승마클럽 유소년승마단 김하랑 선수가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샤르망 유소년승마단 장민지 선수가 중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익산승마장 유소년승마단 박세준, 샤르망 유소년승마단 김태은 선수가 초등부 2, 3위를 차지했고 권승경기에서 호남승마클럽 유소년승마단 조성민 선수가 중등부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장애물 80㎝ 경기에서는 샤르망 유소년승마단 구승호 선수가 초등부 3위를 기록했으며 허들경기에서는 호남승마클럽 유소년승마단 김하랑 선수와 황예린 선수가 각각 초등부 1·2위를 기록하며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많은 승마인들과 관람객이 찾아오는 승마장을 만들기 위해 VR말산업체험관 및 포니체험장 조성 등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첨단 승마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최고의 승마 관광 도시로서 익산의 새로운 소득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익산시에는 민간승마장 5개소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운영 중에 있다. 이중 4개소가 올해 창단되며 지역 유소년 승마 민간 인프라도 함께 증가 추세다. 이를 통해 지역 승마인재 육성과 청소년들의 승마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